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35호 현대불교
2007년 7월 4일(음력 5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내 안의 보물은 바로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켜기둥!

여러분께서 비가 오는데도, 자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몸을 벗기 전에 필연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생각이 때로는 착잡하기도 하지만, 착잡한 것을 생각지 말라 해도 아니 되고 생각해야 해도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 왜냐하면 길을 지나가다보면 별래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그거를 감지해본다면, 기밀 데가 있으면 좀 달하고 기밀 데가 없으면 아주 역력히 자기 살 공리를 합니다. 그런 거를 볼 때에 홀홀단신으로 모든 것을 집착하지 않고 일어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짐을 감안해서 귀도 떠야 하고 눈도 밝아야 하고, 폭도 넓혀야 하고 하니까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머리 위에도 세계가 있고, 우리 발밑에도 세계가 있고, 사방 팔방에 세계가 있습니다. 전체 '대천(大千)' 하면 별처럼 그렇게 있다는 말이고, '대전' 하면 그런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만한 한 지구의 우물에서 '우리가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땐 참으로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물에서만이 자기 집이라고 하고, 자기 거라고 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고 하는 싸움을 계속하는 그런 정신계의 문제와 육신계의 물질세계와 이 모두가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도 보십시오. 허허허, 전쟁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는 거저 쥐도 싫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돈을 갖다 주고 하라고 그래도 싫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문제들이 모두 겉면에 탐착을 해서 그런 거죠. 그것도 또한 욕심이고, 진짜 욕심을 부리려면 우주세계 천차만별을 다 집어먹으려고 해야지 그것이 당연하겠죠. 영원치도 않은 걸 가지고 싸우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통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지않게 생을 버리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세계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연기법(緣起法)이라고 하신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가 전력이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고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서 연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연기법이 있는 겁니다. 켜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전력이 들어오

고 나가는 거는 보지 못하시죠. 그것도 이틀 해서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연기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연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스님, 지금 병원에서 죽어갑니다. 애를 낳고 하혈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니깐 모르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응신(應身)으로 화(化)해서 거기까지 같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같이 해주는 거는 모르되 내가 하혈이 맺어진 거는 알거든, 응, 그러니 그것 또한 연기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연에 따라서, 일체 만물 만생이 다 연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스위치만 누르면 즉발 전기가 들어오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방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방편이 없어도 아니 되고 방편이 있어도 아니 되는 그 가운데 모두 여러분이 각자 있던 말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아휴! 나를 찾았으니깐 힘들고 주인공에다 놓으려도 잘 놔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까닭이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공씨를 심었는데 그 공씨가 바로 썩으로 화해 버렸는데 공씨를 과거로 돌아가서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해드리는 게 맞습니까? 공씨는 썩이 되려면, 인간이 정자 난자에서 의해서 썩이 나듯이, 생산이 되듯이 그것도 수분과 흙과 그렇게 있어야 생산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생산이 됐으면, 썩이 나왔으면 태양열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 때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듯이 여러분이 공씨가 공씨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그 공씨에 공씨가 또 열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씨는 과거 공씨가 현실의 썩에 공씨로 또 그렇게 연방 고리가 고리를 물고 있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이 공씨으로 화했으니깐 지나갔죠? 공 시대는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제 썩 시대죠. 썩 시대에서 썩에 공씨가 또 붙었으니 자기 조상과 그 화한 썩과는 틀이 아니라 얘깁니다. 썩이 없어져도 공이 없고 공이 없어져도 썩이 없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썩과 공과 틀이 아닐지언데 어찌 썩이 공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은 썩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틀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서로 이끌고 있습니다. 누가 이끌어라 말아라 해서가 아니

라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묵은 뿌리가 있습니다. 콩 묵은 뿌리 말입니다! 콩씨가 옥의 부모라고 한다면 콩씨는 법의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넓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넓히기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넓게 알았으면 좁힐 줄도 알아야 한다. 좁힐 줄 안다면 넓힐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넓히고 좁히고 하는 생활의 작용을 어떻게 누구가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 제각기 자기가 있으니까 작용을 하죠? 자기가 없다면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불교를 믿으면서 일하는 거 따로 불교 믿는

서 물어보고 와서 하겠습니까? 종교를 믿으면 어디에 귀의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과 시시각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다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 아닌 타의를 믿는다면 그냥 어떤 큰일이 벌어졌을 때 길에 가다가도, 그럼 부처님한테 법당에 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일은 당하고 난 뒤에 부처님한테 와서 그 일을 그렇게 당했다고 할 겁니까? 아,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가? 즉시 즉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러한 방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거 따로 계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틀이 아닌 까닭에, 전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그 공씨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공씨와 공씨와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씨는 움직여지지 않아도 그 능력은 배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공씨에 배려할 수도 있고요. 그건 자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작용 자체가 바로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현실 그대로가 여여한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어떻게 지금 뭐고 생각하고 하는 세상도, 어떻게 멀리 가

'와지곤 땅탕'이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왜 말로 할 수가 없느냐면 여러분이 그릇이 작으면 나도 작아지고 여러분이 커지면 나도 커지고 똑같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릇이 요만한하면 나도 요만한 수밖에 없지, 요만한 데다 드림으로써 쓸어부어 봤자야, 다 나가버리고 그만한 거를 항상 똑같이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여하게 두루 걸림 없이 할나 할나 나투며 와지곤 땅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제삼자가 대신해줄

까요? 자기가, 자기 몸뚱이가 남한테 보였으니까, 그대로 자기가 있으니까 다행이겠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슴을 짚어 보아시며 공씨를 자기 안에 두고, 남한테 만날 비록 짚을 하는 거죠, 자기 보배를 자기 안에 두고도 말입니다.

그 보배란 어떤 것이냐? 불기둥과 같고 자기 몸뚱이는 수레와 같아요. 이 세상에 모든 차나 어떠한 물건이든지 중심 없이 바퀴가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 중심은 바로 심봉과 같고 자기 보배와 같아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그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배려해줄 수 있는 그것을 다 갖추고 있던 얘깁니다. 왜냐하면 심봉이기 때문에 바퀴가 거기 꿰어져 있거든요. 이 지구도 중심이 없다면 여여하게 갈 수 없게끔 될 때 그걸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우연이라고 하겠느냐고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처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당했지, 그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자기의 보배로 하여금 보이는 데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틀 해서 하나의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연기법이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한 개의 이름이지 진실한 실체가 바로 문제입니다. 길에 오다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보이지 않는 데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만이 보이는 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모습은 저렇게 그냥 했어도 자기 몸이 수월하게 빠질 수 있고 여여하게 갈 수 있게끔 될 때 그걸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우연이라고 하겠느냐고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처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당했지, 그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자기의 보배로 하여금 보이는 데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틀 해서 하나의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구 안에서 이렇게 오를때 오를때씩 살면서, 별래 하나 버리지 않고 살면서 그 바깥으로는 못 나가시죠? 지구 바깥으로 안 되시죠? 그래서 말입니다. 항상 난 그런 말을 잘해요. 그 지구가 버스라면, 대형버스라면 그 대형버스 안에 우리가 들어서 서로 싸우고 그냥 수라장이 돼가고 사는 겁니다. '이러냐, 이러냐?' 옳으냐, 그냐?' 하고 온통 그냥 벌어먹기 위해서 안하무인으로 남을 밟고 남을 올라타고 또 올라타면 위에서 그냥 내리밀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그냥 힘이 들고,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힘이 너무 들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맨 것입니다.

22면으로 계속

서용 대종사 인가제자, 영흥 선사의 선禪 어록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

신간



영흥선사 법문 · 김성우 엮음 / 신국판 변형 · 350P / 13,000원

근현대 고승 30인과의 불꽃 튀는 법거량 95話

경봉, 전강, 춘성, 해암, 서용, 향국, 성수, 승산 선사를 비롯한 근·현대 선사 30여 분과의 95회에 달하는 생생한 법거량은 불법(佛法)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영흥 스님에게 깨달음의 기원을 준 '육쟁이 도인' 춘성 스님과 통도사 극락선원 조실 경봉 스님과의 수차례 선문답은 중국의 조사스님들의 선문답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특히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서용 스님과 그 시자(侍者)였던 영흥 스님과의 일상 속의 선문답은 빈틈없는 재미와 유머, 사제지간의 아름다움과 애뜻한 정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들의 천둥과 벼락같은 살아있는 선문답이 수행자의 인목을 높여주고 단박 깨달음의 기원(機緣)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문관 그 수행 현장과 송고한 구도 이야기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한 선승(禪僧)의 무문관(無門關) 수행일기 **최초 공개**

발구멍 하나 빼고는 사방에 막힌 방에 오직 화두 하나 듣고 참선하는 무문관 수행 일기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무문관 생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일기 공개 - 조신일보

무문관 수행자기 참선 중에 겪은 내면의 체험을 기묘한 일기체의 글은 유례가 없었다. - 문화일보

'깨치지 못한다면 문 밖의 세상을 나쁘지 않으리라.'

한국선의 융광정진하는 기상을 보여주는 무문관 수행을 처음으로 소개한 책 - 무신일보

김성우 엮음 / 신국판 · 304쪽 / 12,000원

하림이예요

신간

하림 스님의 신나는 도심포교 그리고 수행 이야기



하림 스님 · 크라운판 · 118쪽 / 7,000원

플로리다로 참선 수행대회를 지도하러 온 폴 현각 스님에게 하림 스님에 대해서 물으니 "너무 편한 스님이예요!" '상대방을 너무 편하게 해주는 스님'이라며 하림 스님을 추켜 세운다. 하림 스님이 있다는 자체가 내겐 큰 안도감을 준다. 언제든지 내가 가면 그 즉시 너른 팔을 드리워 신선한 그늘에서 나를 쉬게 해 줄 것 같으면 그런 나무들처럼 하림 스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 마음이 넉넉히 따뜻해진다. - 뉴욕불광선원 일담 스님 -

하림 스님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불광선원에서 해외 포교에 전념하였다. 현재 해외포교집지 '클리어마인드' 발행에 참여하고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로 정진하고 있다.